

2019. 7. 8.

공무국외출장심사회의록 (제14호)

※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6조에 의거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회의록

안 건	1.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1		
회의 일시	2019. 7. 8.(월) 14:00 제2회의실		
심의 위원 (7 명)	참 석 (7명)		비고
	위원장	홍영란	불참위원 없음
	위원	김남진 북성경 안영철 이동성	
		정준호 최영곤	
	간사	김혜주	
사무직원	정연욱		
속기사	오미선		
의결 결과	원안가결		

1. 공무국외출장 계획안

○의정팀장 김혜주 (14시 04분 회의시작)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김혜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소개 및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식을 가진 후 정·부위원장 선출, 위원장 인사말씀, 심사 자료 설명에 이어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님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호명 후 의장님께서 이동하시면서 위촉장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김남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복성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안영철 사무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산대학교 이동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변호사협회 정준호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산대학교 최영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여성단체협의회 홍영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다음은 정·부위원장의 선출이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가장 연장자이신 홍영란 해운대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홍영란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네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이 있음)

해운대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은 해운대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홍영란입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회를 이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생각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란

저는 서툴러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영철 위원

위원장님이 그대로 위원장님을 하시고 부위원장님은...

○위원장 홍영란

어쩌다가 연장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이동성 위원님, 추천이 있으신가요?

최영곤 위원님, 추천...

○최영곤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그대로 하시는 게 어떨겠습니까?

○위원장 홍영란

그대로요?

○김남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영란

감사합니다. 연장자가 위원장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추천대로 임시 위원장을 맡은 제가 위원장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은 정말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명원

진행을 조금 도와드리면 부위원장은 원래 위원장님이 지명하면 되는데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위원장 홍영란

저도 그렇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추천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을 받고 아니면...

○김남진 위원

이동성 심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영란

또 다른 분...

○안영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영란

그러면 박수로 부위원장님은 이동성 위원님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정·부위원장 선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정팀장 김혜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홍영란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또 이동성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홍영란

여러분, 제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장 홍영란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출장은 해운대구의 산적한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발굴하고 안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사회복지 분야와 도시재생, 친환경, 에너지, 교통 등 해운대구가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분야들입니다. 매년 해운대구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추진 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작년에는 의원들 개개인의 관심 분야를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1인 출장을 실시하였고 작년에는 출장 결과를 주민에게 직접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해운대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의 현명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팀장과 김백철 의원님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백철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김혜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심의 자료를 봐주십시오.

먼저 출장 목적 및 추진 방향입니다.

이번 국외출장은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의 관심 분야를 회의를 통해 취합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과 친환경, 에너지, 도시재생 등의 분야를 선정하였고 이들 분야에 대해 가장 우수한 시스템을 운

영 중인 독일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장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독일의 우수 사례를 즉각 구정에 접목하기 위해 집행부의 업무 관련 직원도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여성 복지 및 아동 지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빌라봉 마더센터와 알텐첸트룸 노인복지 주택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슈투트가르트에서는 태양광과 옥상 정원을 꾸며놓은 시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우리 구 공공 건축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전기트럭 전용 고속도로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운영 기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가 좌동에 건축 예정인 청소년센터와 관련하여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센터도 방문합니다.

다음, 베를린에서는 구도심인 운터 덴 린덴 거리와 신도심인 쿠담 거리를 방문하여 상권 활성화 사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여성건강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제정을 준비 중인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련 지원 조례’ 관련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베를린 시내에 있는 리히텐베르크 베찌르크(독일의 구 단위)를 방문하여 우리 구의 적용 사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독일 지자체의 지방자치제도, 분권 등 우리보다 발전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마을 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의 적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드레스덴에서는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을 파악할 예정이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장애인 놀이 활동시설도 방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 6월에 개최하고자 했던 심의가 오늘로 연기된 이유가 기관방문 섭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현지 유학생을 통해 기관 섭외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으로 불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베를린의 리히텐베르크구는 섭외가 진행된 상태이고, 나머지 기관들은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독일 총영사관과 코트라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문 기관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오늘 심의회를 열게 된 것은 독일 총영사관에서 심의를 확정하고 나서 연락을 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

입니다. 섭외 완료 후 심의가 통과되지 못하면 영사관의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사관과 코트라를 통한 기관 섭외 결과 당초 계획과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서면 심의를, 다소 많은 기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회를 한 번 더 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출장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출장에 따른 출장경비 산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5 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및 별표4 규정에 따라 산출했으며, 환율은 7월 5일 기준으로 1달러당 1,192원입니다. 세부 금액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숙박비를 85%만 지급하여 별도 정산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일비를 제외한 숙박비, 식비는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지급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출되었으나 모두 일괄 350만 원으로 지급되는 이유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상 공무국외출장 최대 편성 금액이 350만 원이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비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당초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부족 예산은 자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장 효과에 대해서는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장 결과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며, 8박 10일간 독일 국외출장 세부일정에 대한 상세한 부연설명과 질의, 응답은 김백철 의원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철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백철 의원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일정과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부일정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

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올해 민선 8기 들어서 국내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여러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해운대구에서는 주민들의 눈높이를 의식해서...

그런데 민선 8기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는 초선 의원이 대부분이고 재선 의원과 다선 의원들은 5명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2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조직되어서 활발하게 역량 강화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역량 강화로 인해서 의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이런 부분들은 뛰어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졌고 그래서 그런 눈높이에서 제대로 준비된 모습,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개선 방안을 찾아주면 의외로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눈높이를 상향시키는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 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부터 의회에 나와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5월 14일에 국외출장추진위원장으로 정식으로 위촉을 받게 되어서 두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외유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뺄 수 있도록 했고 스스로 준비하고 그리고 내용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전국의 구·군 의회 중에서 이러한 심사를 받는 데가 아마 저희 해운대구가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른 구·군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관 섭외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모든 부분이 캔슬(cancel)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영사관이나 우리가 준비하는 데 위상의 문제가 있고 또 유럽에서는 섭외가 들어갈 때 사실은 도네이션(donation)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섭외를 하고 취소가 되더라도 도네이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날

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바로 기관 섭외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일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소는 저희가 대중교통이 편하도록 역 주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이 주 거점 지역이 되는데 이때는 저희가 저녁에 다 모여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웬만하면 대저택 같은 데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호텔이 아닌 이런 곳을 섭외해서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2인 1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8개 정도의 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와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맞는 부분들로 해서 의원들이 조별로 움직이고 조별로 자기가 맡은 분야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분야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이 그 분야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보되, 나중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사전에 준비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서 우리 의원들이 몇 개 조로 나뉘어서 조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갔다 왔을 때도 보고서라든가, 여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서 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정해 놓았고요.

그런데 공통 분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분야와 통일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상향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을 이루어내겠다면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구의회 의원들의 위상이 높아져야 되고 그만큼 역량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을 선택한 이유도 지방분권에 대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오랜 역사의 독일

이 도시 복원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선진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해운대에서 정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각 분야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에서 독일을 정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세부일정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랑크푸르트에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아침 9시에 구청에서 출발해서 3시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날 저녁... 우리가 7시간이 앞서기 때문에 그날 저녁 8시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시차 적응상 빨리 쉬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튿날인 다음 날에 우리가... 나중에 세부일정을 보겠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 두 군데의 시설을 방문하게 됩니다. 선진 육아와 노인복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더센터와 노인복지 주택, 알텐첸트룸을 방문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3일째가 되는 날에는 1시간 반 거리인 슈투트가르트에 가게 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친환경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도시인데 특히 도서관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은 태양광과 옥상정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진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은 한국의 이은영 건축가가 지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세계 7대 도서관이라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기관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센터와 자동차박물관이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또 슈투트가르트에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과 박물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장과 박물관을 보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역사의 흐름을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프랑크푸르트에서 묵은 다음에 4~5시간이 걸리는 베를린으로 갑니다. 그런데 유럽은 2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시간 운전을 하고 나면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대중교통인 기차로 5시간 거리인 베를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베를린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과 분권에 대한... 우리 해운대구처럼 자치구의 단위가 되는 게 베찌르크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지금 리히텐베르크가 제외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한 제외는 안 되어 있는데 그쪽을 타진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대한민국 이지 않습니까?

물론 독일은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통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지금 평화의 무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주민들의 생각, 그리고 의회가 나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도 배워야 되고요. 또 베를린은 신구가 결합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와 구 도시를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포츠담으로 가는데 포츠담으로 가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리히텐베르크 베찌르크와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누어졌을 때 유럽과 우리 해운대구가 과연 우호 도시가 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오전 일정을 다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포츠담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포츠담은 아주 중요한 회담이 일어난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포츠담회담이 열렸던 장소인데 그 부분은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포츠담이 도시재생이 아주 잘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전체적으로 다 걸어 다니면서 구거리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올 생각이구요.

그다음에는 드레스덴으로 이동을 합니다. 드레스덴은 독일에서 옛날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라든가, 다른 나라로 옮길 때 항상 이 지역을 거쳐야 됩니다. 이 드레스덴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우리 전 의원들이 교통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잡았으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일째 부분인데 하이델베르크는 아니고 하이델베르크 가는 길에 2시간 정도 거리에 알바텐 리벤슈프에라는 무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놀이터 시설과 그리고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참고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여기를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했는데 우리 해운대구도 장애인복지관이 곧 준공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갔다가 다시 2시간을 이동해서 하이델베르크로 옮깁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도시 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시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복원을 하고 그 도시를 지키면서 어떻게 지역의 브랜딩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9일째인데 공항으로 오는 길에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작센주 5번 국도 거리에 대해서 팀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전기자동차, 전기트럭이 달리면서 충전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BRT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BRT에 전기버스가 다니게 되면 충전 시설도 같이 연계를 해서 버스가 다니면서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세부적인 일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에 도착해서 하루 쉬고 그 이튿날... 숙소는 역 주변이 될 것 같고 1시간 정도 지하철로 이동하게 되면 빌라봉 마더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선진 육아와 노인 복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어린이집과 양로원이 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뛰어넘어서 부모와 어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기의 전문 일을 하고 그리고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육아도 직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보기 때문에 재능 기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에서 요지로 움직이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게 되겠고 그다음에 오후에 가는 데가 알텐첸트룸센터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네 군데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알텐첸트룸은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군데 중에 하나인데 이 모델

은 운영 주체가 따로 있고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노인종합시설입니다.

나중에 아무래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 해운대에서 살고자 하는 부산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벤치마킹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일째에는 슈투트가르트에 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는데가 도서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7대 도서관이고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태양광과 옥상정원, 그리고 각종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견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주펜터세미나 해서 슈투트가르트의 청소년센터입니다. 독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센터에서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좌동도 부지가 확보되어서 지금 부지 변경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센터를 지을 건데 우리 해운대구만 해도 6만 2,000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운대가 지금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는 청소년복지관이 있는데 좌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지게 되면 좋은 모델로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자동차나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을 방문할 생각입니다. 방문하고 나면 옆에 박물관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의 히스토리를 배워서...

특히 해운대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자동차 도입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무분별하게 발전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이런 친환경 자동차가 빨리 도입이 돼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제가 공부하기로는 거의 반나절은 계속 다 봐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갔다 오게 되면 볼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슈투트가르트가 거의 몇 백 년이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심이 너무 잘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여기에 솔로스광장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독일에서는 광장의 역사를 배워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이 광장에서 두 도시가 형성된 배경을 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광장이 생기면 관공서가 있고 의회가 있고 그리고 법원들이 그 광장에 다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행정의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역사의 현장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구청 주변이나 구청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만약에 구청이 이전을 하더라도 그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구청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 주변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 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일정은 시간상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되면 시청 주변에서 이 도시가 형성된 배경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광장은 반드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말숙 의원

김백철 의원님, 지금 시간이 40분이 돼서 조금...

○김백철 의원

예, 그러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의원

예, 질의하고 답변도 해야 되니까요.

○김백철 의원

그다음에는 저희가 5일째에 베를린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운터 덴 린덴 거리인데 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쪽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신거리인 쿠담 거리가 있고 이 밑으로 걸어서 20분 정도만 가게 되면 여성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출산 이후의 산모라든가, 자녀를 초반부터 어떻게 보육해야 되는지를 복지시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도 조례가 발의되고 했기 때문에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그리고 여기가 국회의사당 쪽인데 제가 준비할 때는 베찌르크라고 하는 구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리히텐베르크 베찌르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게 되면...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일정과 좀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히텐 베르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이 일정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때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반드시 금요일에 되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의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서 이 베찌르크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스트사이드 쪽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츠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회담이나 역사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글레니케다 리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다리입니다. 200년 정도 된 다리이고 이쪽 중심으로 녹지와 가로수길, 그리고 보도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이런 부분들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오게 되면 중고품 가게라든가, 트램이나 보행자 전용 도로, 이런 것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 하천 주변으로 거리가 정비되어서 곳곳에 카페거리, 우리 같으면 해리단길, 이런 지역 주변으로 어떻게 조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도시재생형 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온종일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를린에서 2시간을 이동하면 드레스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갈 데가 교통박물관입니다. 드레스덴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교통박물관을 보고 나면... 그리고 조별로 우리 의원들한테 일일 교통이용권을 드릴 겁니다. 드레스덴에는 일일 이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차, 트램, 지하철, 그리고 버스, 이런 것까지 이 일일 이용권을 가지고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다 돌아볼 수 있도록 조별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해서 하루 일정을 끝낼 겁니다.

그리고 드레스덴에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예술의 거리들이 아주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도 바닷가 주변으로 버스킹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드레스덴에도 이 버스킹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이 문화관광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에도 로컬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접목시킬 수 있는지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드레스덴에서 2시간 정도 이동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바텐 리벤슈프에라고 해서 장애인하고 무장애인이 같이 놀 수 있는 복지시설을 보고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이동합니다.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하면 철학자의 길에 갈 겁니다. 혹시 독일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철학자의 길이 볼품이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철학자의 길로 하이델베르크가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문텐로드나 달맞이길, 그리고 얼마 전에 좌동~송정 길을 새롭게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좌동의 여러 가지 산책길이나 우동에도 새롭게 조성된 아름다운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브랜딩화시켜서 로컬 관광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의원들이 반드시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주변으로 도시 복원에 대한 독일의 정책이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에도 복원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계속 지을 게 아니고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상품화시켜 나갈 것인가, 관광 쪽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곳만 보는데도 하루가 다 저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는 길에 전기차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트럭 전용도로를 보면서 우리 BRT와 접목할 수 있는 전기차 운행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서 저녁 5시에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는 일정입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다 이렇게 브리핑해 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섭외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사가 통과되게 되면 모든 기관이 8군데에서 9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총영사관과 또는 코트라 관장님을 통해서 심사가 통과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섭외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한 달 반 전에 섭외가 이루어져야지 기관 방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를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섭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두 달 동안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물론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지만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을 거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준비한 부분이라서 미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심사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가감해야 될 부분을 사심 없이 말씀해 주시면 99% 정도는 저희가 감수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홍영란

김백철 의원님, 의정팀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학위를 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순서를 보니까 주민복지, 주민자치, 도시재생, 그리고 에너지, 환경 분야가 있는데 특히 해운대구가 관광도시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주민복지 부분이 잘 되어 있지만 아까 미세먼지하고 탄소 배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트럭 전용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보겠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시에서 도시재생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점, 그리고 리히텐베르크를 방문해 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강의도 하는데요. 리히텐베르크가 사실은 전 세계가 가는 주민참여제도의 종착역 같은 그런 곳입니다. 베를린 자체가 잘사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리히텐베르크는 거기에서도 독보적으로 주민자치를 통해서 공동체의 부를 축적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단지 우려되는 것은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해서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 항공료를 120만 원으로 잡았는데 제

가 볼 때는 절대 아니거든요. 항공료가 아마 일반적으로 가면 180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인 조치가 없으면 12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경험해 본 바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고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사항이 오면 그때 다시 심사한다고 하시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간략한 형태로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란

예,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성 위원님.

○이동성 위원

안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참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느꼈고요.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독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의 개념을 좀 이야기하면 독일은 공적 개념이 강한 나라다...

예를 들면 해운대구에 백사장이 있는데 여기에 70층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독일 사회에서는 미안하지만 해운대의 전경은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잘살아도 향유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은 작은 집을 짓고 공원으로 해서 그것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공적 개념이라는 게 독일의 국가 철학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학을 이해해서 행정에 좀 더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남해의 공무원들이 독일에 국외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적을 때 마지막에 교민들을 만났는데 교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인터뷰를 보고 준수하고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독일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했을 때 독일 교민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일정이 있어서 그분들이 바라보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출장에 의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논어에 보면 ‘리더, 군자는 먹는 것과

자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쓴다.’ 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혈세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는 것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눈높이를 좀 더 고려해서 판단하면 더욱더 좋은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혈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게 배울 것은 전쟁에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개인 돈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기록해서 느낀 점들을 남겨서 돌아오셔서 주민들에게 보고를 할 때 식견을, 느낀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출장은 반드시 가야 된다, 공자와 예수, 석가 모두가 ‘투 시 이즈 투 빌리브(To see is to believe)’, 보고 깨달았다, 그래서 견문은 반드시 넓혀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되면 의미 있는 출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란

감사합니다.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신 이동성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 사항이 있으십니까?

○김남진 위원

지금 현재 장시간 굉장한 스케줄에 대한 설명으로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마치 다녀와서 배움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현재 어떤 비행기를 타실 예정이신가요?

○김백철 의원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것으로는 루프트한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남진 위원

스케줄이나 이런 것은 대한항공이 훨씬 좋을 텐데 왜 루프트한자로...

○김백철 의원

싸서...

○김남진 위원

대한항공이 지금 아마 Q클래스나 U클래스 특가로 하면 독일 왕복이 최대 90만 원 정도에... 부산~인천 구간까지 포함하면 100만 8,000원 정도면 지금 특가로 끊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한번 챙겨보시고요.

○김백철 의원

그것은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진 위원

그다음에 스케줄은 부산~인천공항이 좋습니다. 아~ 대한항공이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이용하실 교통은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역과 지역 간에 이동을 할 때는 기차를 이용하시고 현지 지역에 도착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백철 의원

예, 맞습니다.

○김남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스케줄은 굉장히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취지와 거기에 가서 배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이 저희들이 차용해서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하루하루의 일정을 보면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오후 1시쯤에 마더센터를 방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유럽,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트래픽(traffic)이 굉장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특히 오전 시간, 그리고 이 거리를 지금 20명이나 되는 의원님들이 9월 하순이기는 하지만 낮 시간대에 그렇게... 기온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선하지는 않은 기온일 거예요, 햇살도 굉장히 따갑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일정을 치르게 되면 원하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현지에서의 이동 수단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새롭게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주시는 세금으로 가는 일정이라 여러 가지로 금액을 낮춰서 왜 소하게 가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목적은 잘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배우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좋은 컨디션으로 가서 현지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을 보면 나와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현지 관공서나 심지어 박물관, 이런 데도 노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강행군이에요. 아침에 버스로 현장에 데려다 주고 거기에서 1~2시간 짧게 이렇게 만나고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강행군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는 걸어서 자료를 들고 20명의 의원님들이... 이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아껴서 싸고 저렴하게 가는 것보다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40만 명이 넘는 해운대구민들이 직접 뽑아 놓은 주민들의 대표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주민들의 눈치 때문에 돈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편리성과 주민을 대표한다는 시각을 가져서 안전성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란

감사합니다.

예, 김백철 의원님.

○김백철 의원

짧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인원이 토털(total) 20명 정도 되는데 개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이나 버스를 대절해서 운행하는 비용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뒤에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효율적인 부분이 된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교통수단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명이 이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나 식당,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4인 1조 정도로 조별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별로 움직일 생각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이나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운행하는 비용에 대해서 별 차이

가 없다면 안전성을 위해서 체력을 안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철 위원

조별로 하신다는 말씀이 분과별로 집중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이 조가 가고 또 저쪽으로 가야 될 때는 저 조가 가고 이렇게...?

○김백철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움직이는 것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통솔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를 끊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철 위원

제 생각에는 김남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뻑뻑한 일정을 소화하기가 힘들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선택지를 두는 것이 좋을 수도...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서 막상 갔을 때 중요한 곳인데도 나중에 바쁘거나 지쳐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육체를 많이 사용해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같은 가격이면 차량으로 이동해서 움직여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백철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임말숙 의원

심의가 끝나면 지금 보완하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계획을 철저히 잡겠습니다.

○김남진 위원

개중에 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곳을 방문하기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다 좋은 곳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꼭 가서 배워보시고 또 같이 체험을 해 보면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시간과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서 3분의 1 정도는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백철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참고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란

최영곤 위원님.

○최영곤 위원

보니까 굉장히 뻑뻑합니다. 좀 여유 있게 갔다 오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제가 보니까 독일에 대한 선택의 적합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뻑뻑하게 되어 있으면... 결국은 해외출장이라는 게 갔다 와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스케줄이 너무 뻑뻑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얼마만큼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매년 해외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과거에 갔다 와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서 실제로 성과가 나온 것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김백철 의원

저도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보고서는 매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말숙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주민보고회도 했고요. 그리고 LA의 글렌데일시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그곳에 소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에 저희 의회도 초대를 받아서 참여도 했고 또 글렌데일시장님도 저희 해운대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 스스로가...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명원 의장님께서 28일 정도 유럽에 자유여행으로 가족들하고 다녀와서 책까지 펴내셨고 또 김백철 의원님은 40일간 배낭여행을 직접 체험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잘할 거고요.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저희들도 외

부에서 보는 시각을 다시... 또 우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최영곤 위원

저는 어렵게 혈세를 가지고 가시니까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또 실제로 독일에 갔다 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를 한번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도시의 도로망이 방사선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도 특히 부산이나 해운대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고려해서서 가능하면 부산하고 입지 조건이 비슷한 도시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란

좋은 안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성경 위원

그러면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출장지 선택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의논해서서 공히 선택했던 이런 방식도 구의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결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공무출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장을 가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디든 좋은 것들이 많고 시사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당장 직면해서 해결해야 될 해운대구의 문제, 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지금 현재 구민들의 요구, 이런 것과 연결된 문제에서 시사점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까 리히텐베르크구에 가서 직접 주민자치와 관계돼서 배우시는 것에 오전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시민단체들끼리 해외출장을 나가본 적이 있지만 사실은 오전 시간을 내서 가더라도 기관이나 시설만 돌아보는 데도 한참이 걸리고요. 솔직히 우리가 생

겨있는 모습이나 건물을 보는 것만이 출장의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실제 운영에서 어떤 평가를 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세밀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질의, 응답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그냥 뭉뚱그려서 주민자치를 배운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워서 우리 구와 그다음에 구의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잡아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해운대구민들이랑 같이 신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가장 많이 내신 의견 중에서 해운대구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의 문제점으로 꼽는 게 뭐였느냐 하면 구[舊] 해운대 역사와 뒤쪽에 있는 해리단길 그 영역, 그다음에 구남로와 해안 라인, 이게 정말 하나의 도시재생 내지는 부산의 대표, 해운대구의 대표 관광지, 또는 해운대구의 많은 분들이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 복지공간으로 쓰면 참 좋은데 전부 다 단절돼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공원의 개념이라든가, 친환경, 주민의 의사 반영, 이런 것과는 지금 상당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구보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안 봐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진 공원의 상들이나, 도로,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무엇을 중심에 두고 그 구에서나 그 도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공적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셔서 시행을 하시면 16개 구·군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박물관 같은 데를 방문하시는 거 있잖아요, 공장... 그러니까 나름의 의미는 다 부여하면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강행군이고 백화점처럼 이왕 간 거 다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과거 스타일적인 출장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것은 꼭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해운대구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오히려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도시 재생에서의 친환경적이고 주민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 그다음에 자치구의 발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맞춰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영란

의원님들, 앞으로도 더 고려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김백철 의원

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홍영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다들 하셔서 저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저는 여기에 있는 심의 자료를 메일로 받아서 읽어보면서 제일 큰 의문이 들었던 게...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이 심의 자료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정확하게 어떤...

뭔가를 배우겠다고 해외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해운대구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그 문제의식이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대단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친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친환경 자동차를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자동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박물관, 그리고 교통박물관, 이런 박물관을 본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제가 거기에 있는 박물관을 안 가봐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시는 건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친환경 영역과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서 주택 방문, 센터 방문, 장애인 놀이시설 견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대단히 독특하게 발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관 위주로 발전이 되고 국가가 아닌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에서 이러한 센터들을 직접... 시스템을 보시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시설을 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나 운영하는 방법들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습니다.

○김백철 의원

먼저 여기에 게시는 분들 중에서 국외출장의 목적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

제가 아무래도 국제교류재단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뒤의 두 분께서 지적하신 것은 국외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여기에 게시 분들이 다 의원님들께서 국외출장을 다녀오셔서 많이 배우셔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겁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는데 무엇을 배워올 것인가,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개발 위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데 집중을 했던 거죠. 무엇을 어떻게 만들까, 이때까지 한 번도 만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선진... 그러니까 ‘선진’이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 보다 더 발전된 국외출장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한계는 무엇이며, 저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어디까지 적용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발전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국외출장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치분권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치분권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자치분권을 하고자 하는 나라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시스템상에서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아~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 어느 것을 우리 구에 도입을 해 보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발표를 해 주시면 구 의정에도 정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 스스로에게도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백철 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안 문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을 해결책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출장 장소도 선별을 할 때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 고민해서 출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국제교류재단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슷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는 저것을 어떻게 도입하고 앞으로 좀 더 선진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볼까,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다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그런 방법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키워나가야 될 역량... 특히 주민 자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배워오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말을 못 한 상태에서 끝이 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가서 직원들, 그다음에 그쪽의 기관장들,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서 그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소담스럽게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백철 의원

예, 그 얘기도 충분히 맞습니다.

○임말숙 의원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이 자료만 보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분권이든지, 균형 발전, 그다음에 혁신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복지라든지, 자치행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배워오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해운대구에도 동 단위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구를 방문해서 그 시설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충분히 다 듣고 배워오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길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설명을 다 못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돈이 드는 만큼 저희들 스스로도 배워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실망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다 보완하고 고려하고 특히 더 연구해서 보고회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면서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란

예,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동성 위원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을 선정하셨는데 가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세계 선진국은 각자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그리고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다르고 프랑스가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일본이 다릅니다. 중국도 다릅니다.

그래서 독일로 출장을 가실 때 독일의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것을 생각해서... 이제 2만 불 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2차 밴드, 대기업이 주문한 것을 기관에 맞추면 2차 밴드가 되는데 결국은 1차 밴드가 되려면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

에 그런 창의적인 부분,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도 같이 겸비하면서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좀 있겠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무리 유능한 악보도 심표가 없으면 연주를 할 수 없다.’ 는 말이 있는데 이 일정에 있어서 양적인 것보다 의원님들이 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끼리 중간평가 개념으로 잘하고 있나, 아니면 수정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통해서 질적인... 또 아까 말씀드린 구정의 정책과 연결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백철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냐 하면 조별의 최소 단위는 2명이고 그 위에는 또다시 4명, 그다음에는 전체 8명, 주민1조, 기획1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정을 마치고 매일... 그러니까 2인 1조가 최소인데 복지 부분, 청소년, 노인, 이런 식으로 다 분업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 관광, 복지, 자원,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보지만 특별히 분야를 맡아서 자기가 의무감 있게, 책임감 있게 매일매일 메모를 해서 그것을 추진위원장님하고 의장님, 그다음에 저,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는 분들에게 보고하게 해 놓았거든요.

○김백철 의원

그래서 매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임말숙 의원

그래서 문자로 토스를 다 하는 걸로, 아니면 리포트 형태로 카테고리 정도를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도 다 부여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의원

예, 매일 보고하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홍영란

예, 잘하셨네요. 또 다른 토론...

○김남진 위원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는 배우미라는 게 실질적으로 프로세서를 배우오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얻느냐 하는 데 좀 국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외유성 국외출장이다 하는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살인적인 일정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녀오시게 되면 해운대가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의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진취적인 일정을 잡으셨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동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행위를 하면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하루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이 안에 넣으면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못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권고사항으로 해서 하루 정도는 그냥 즐겁게 노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수 굴지의 대기업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 직원을 내보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고 또 보고서도 받지를 않습니다, 월급을 줘가면서... 그것은 그 사람보고 현지의 전문가가 되어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말의 핵심은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속에서 함께 어울려 보는 그런 시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여쭙보시고 괜찮다면 위원회에서 권고해서 하루 정도는 자기개발 시간을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여쭙봐 주시고 전부 동의하시면 한번...

○위원장 홍영란

예, 딱딱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젊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고 다니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남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휴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하루쯤은 의원님들이 휴식 내지는 그런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성경 위원

잠시만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남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개인 자격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역시나 주민을 대표해서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루 동안 개별적으로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의 시선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차라리 그것에는 동의하거든요. 지금 살인적인 일정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오히려 출장의 목적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빡빡해서...

그래서 현실 가능하면서도 조금은 여유를 두면서 뭔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한 그런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권유는 심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나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넣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의 시선에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영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잘해도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를 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의도는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치를 하시는 의원님들 스스로가 부담스러워서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복성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히텐베르크구를 방문해서 성사가 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녁식사도 그 기관의 직원들과 같이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치를 해서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유격을 좀 주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영란

또 다른 위원님들은... 동감하십니까?

○이동성 위원

안영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영란

예, 맞아요. 또 외유성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럴죠?

○이동성 위원

예, 맞습니다. 정무적인 판단까지 배려해 주는 심의위원회는 아마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김백철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영란

예.

○김백철 의원

쉬라고 하셔도 저희들은 못 쉽니다, 경비가 있어서... (웃음)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의도인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여주기 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성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매칭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보고만 오는 이런 단계가 아니고 보고 와서 우리가 충분히 느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집중해서 볼 수 있게 기관 방문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로 텀(term)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조절해서 루즈(loose)할 때는 루즈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집중해야 될 때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란

하루 동안의 휴식은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웃음)

○김백철 의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란

알아서 일정 조정을 잘하시고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위원님, 토론하실 게 있으십니까?

○복성경 위원

제가 그러면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외유성 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목표가 제대로 없고 구체성이 결여되고 갔다 와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유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뿐이지, 그것만 잘 갖췄으면 이전의 출장에 대해서 국민적인 시선이 따가웠을 리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부산시 16개 구·군의 출장과 관계해서 부산MBC의 빛방 커라는 시사프로그램에서 취재를 아주 깊이 있게 해서 몇 편을 방송했는데 그게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시민들의 불만은 의원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표가 무엇이었는데도 잘 모르겠고 보고도 안 하고 실제 우리 구와의 연결 지점이 미래지향적이든, 현실을 해결하는 문제이든 간에 쟁점이 되는 게 없었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너무 얽매어서 출장을 가시는데 그것만 보완하신다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거고 그리고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영란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정팀 정연욱

잠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고서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 보고서에 다 못 담았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 하면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앞의 임시회 때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해운대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좌동에 청소년수련관의 부지가 확보돼서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는 지역별로 군데군데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련 시설은 조만간에 조례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일이라는 게 국방하고 경찰 외에는 구청에서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회의를 하시면서 현안과 관련된 것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욕심에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 한 건 한 건이 구정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 상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영란

일정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참고사항

